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비전채플), 11:00AM(찬양채플)
- 한어중등부(CIM) / 샬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쏘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큰 영광중에 계신 주(찬41/새20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이상태 장로 2부/이석희 장로 3부/최동주 집사 4부/이경석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신상우 편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부/요(John) 9:1-7 2부/창(Gen.) 22:1-19..... Altogether **다같이**
3부/히(Heb.) 13:11-16 4부/벧전(1 Pet.) 2:18-25
- 말씀 Message 1부..... **발상의 전환** Rev. Kangtaek Lee **이강택 목사**
2부..... **약속의 아들을 드리라는 시험** Rev. Eun Jae Joo **주은재 목사**
3부.....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 Rev. Young Jae Song **송영재 목사**
4부..... **발걸음** Rev. Sung Min Hong **홍승민 목사**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부/주 임재 안에서 2부/시선 3부/나의 영원하신 기업(찬492/새435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별은 어두울수록 초롱초롱 빛난다

Darker the sky, Stars shine brighter

영어로 "I got used to do it" 익숙해졌다는 말입니다. 미국 와서 살면서 어색했던 영어가 점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 "안녕하세요?" 인사 말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끼리도 영어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아내에게 남편에게 칭찬과 격려, 그리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말들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배우듯 자꾸 배우면 어느 순간 익숙해집니다. 어느 분은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 '영혼이 없는 말' 같라며 불평 아닌 불평을 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서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한 후 영어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번역하는 시간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고맙다"는 말이 영혼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번역의 시간차 때문이지, 결코 내용이 가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말 우리는 '고난'에 대한 신학강좌를 가지면서 많은 강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닷없이 우리 삶에 끼어든 고난은 낯선 손님과 같고, 처음으로 배워야 하는 외국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 말을 ABC부터 배우는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TV에서 보는 외국의 풍경은 정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동경할 만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여유 뒤에는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익숙해지는 시간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즐긴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익숙해지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고난의 어떤 숙련 기간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C. S.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돌에게 말하는 법 가르치기>의 저자 애니 딜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두운 바깥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별들이 보고 싶다면
반드시 어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별들은 어둠을 필요로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지만,

별을 보고 싶어서 어둠을 일부러 찾지 않을지 몰라도, 어둠이 왔을 때 비로소 보이는 짙어지는 별들이 있습니다. 옛날 큰 별이 동방박사를 예수님께 인도했듯이, 우리도 어느 날, 고난에 익숙해진 시간에 예수님 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English phrase 'I got used to it' means that you have become familiar. While living in America, I have become more familiar with English. I was awkward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it was awkward even to say the greeting 'How are you?' Now it's not awkward at all to greet even other Koreans in English. Similarly, it could be awkward to praise and encourage wife or husband. Initially, expressing words of gratitude could feel awkward. But, like learning another language, at some point, you will become used to it. Some complain, which is really not a complaint, that when her husband says such thing, it feels like empty words. Perhaps, when learning another language, it's proper to learn to listen first before speaking. I still, more than not, translate Korean to English in my head before speaking in English. That period of translation could feel unnatural. I think the reason why the wife says her husband's 'thank you' feels empty is because of the translation time, not that the content is fake.

During our Theological Seminar this weekend, we have listened to many lectures and sermons on suffering. Hardships that suddenly come into our lives are like strange guests. It's like foreign language that you must learn for the first time. When you haven't lived in a foreign land and haven't experienced learning their language from ABC, pictures of foreign land on TV are nothing more than a pie in the sky. Being able to enjoy the foreign scenery worthy of admiration requires spending time to learn the language and culture. If there wasn't time to familiarize, despite the beauty, you can't really enjoy the scenery.

It is a misnomer to say that one enjoys suffering. No one claims suffering for oneself on purpose. However, if you became used to suffering, more accurately, after some period of hardship and learning, there are things that will be revealed at last. Borrowing C.S. Lewis's words, at last you hear God's voice. Author of <Teaching a Stone to Talk> Annie Dillard says this.

You don't have to sit outside in the dark
But if you want to see the stars
You will find that they need darkness
Stars don't need or demand darkness,

You may not seek out darkness to see stars, but there are twinkling stars that can only be seen when darkness falls. Long time ago, a large star led the wisemen to Jesus. We will one day, when we are used to suffering, come stand in front of Jesus.

주일 설교노트 / 나눔교재

- 1부: **발상의 전환** (요 9:1-7) 이강택 목사
- 2부: **약속의 이들을 드리라는 시험** (창 22:1-19) 주은재 목사
- 3부: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 (히 13:11-16) 송영재 목사
- 4부: **발걸음** (벧전 2:18-25) 홍승민 목사

적용하기



■ 적용찬양: 1부/주 임재 안에서 2부/시선 3부/나의 영원하신 기업(찬492/새435장)

선교
T국

우리 함께 하나님 믿어요!

T국은 저희 부부의 첫 선교지입니다. 봄부터 그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저희는 망설이며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가라"고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고, 결국 순종의 결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지 상황상 '문화원'이란 이름으로 신분을 감춰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지만, 그곳을 통해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현지 청년들을 모으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들간 진행된 문화 체험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한글을 가르치며 전통놀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일



어났습니다. 작별의 순간, 눈물을 흘리는 자매들을 보며 마음이 몽클해졌고, 껴안고 손을 잡으며 위로하던 그 순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믿어요.'

T국에 도착한 후, 또 하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하는 현지인들이 많아졌기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는 호칭 대신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했고,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없었으며, 버스 안에서조차 찬양은 조용히 들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문화원 개원 날, 수행하셨던 박 목사님께서 한국과 T국 국가를 부르시며, 애국가 가사 중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힘있게 외치셨을 때, 선교 기간 내내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감춰야 했던 우리에게 그 순간은 영혼에 단비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T국 땅을 위해 모두가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회심자가 없다는 사실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묵묵히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 그렇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전하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쉽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눈물과 기도, 정성의 씨앗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임을 믿으며,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돌아오기 전, 선교사님과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선교는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도 T국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병임 집사

예배
엘리사 새벽기도회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삶



담당 목사님의 설교로 화평목장과 조이목장이 함께 드린 엘리사 새벽기도회의 한 주간은 서로에게 큰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된 새벽기도회 후에는 두 목장이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매일 가졌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의 양식을 얻게 하였고, 예배 후에는 자원해서 준비해 주신 간식으로 이른 아침에 육의 양식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의 풍성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던 한 주간 동안,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필요한 군대도 붙여 주시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의 믿음은 작을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 기울여 주신다는 말씀이 큰 위로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에 힘써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은혜 집사

Last summer, I fondly remember attending the Elisha Morning Prayer. My mom

and I got to meet new faces and quickly grow close over our daily breakfast talks, and it was a great encouragement right before school started. This year, our community's turn was earlier in the summer, specifically before my last year of college. Though there's much excitement, I'm also equally as anxious about my upcoming future and have many personal hardships. But like the story of Deborah and Barak, which demonstrates God's victorious power over worldly limitations, I trust that God will lead me through my battles. Like Deborah, I pray that I will build my life rooted in unconditional faith rather than worldly expectations.

Andrew Kim

사역
OICOS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오이코스!!



오이코스 팀은 베델교회의 온 세대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예배 사역팀입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가 단순히 '어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직접 예배를 주도하고 부모세대와 함께 동참하며 세대 간 회복과 영성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꿈꾸며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매달 오이코스 예배 이후에는 팀이 모여 그 달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와 아쉬웠던 점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다음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게 준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합니다. 이른 새벽임에도 아이들이 기쁘게 나올 수 있는 예

배,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드리는 살아 있는 예배를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세워갑니다.

예배는 베델교회 교육부서와 협력하여 콰이어와 안내팀을 구성하고, 오이코스 콰이어와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찬양팀들이 함께 찬양을 인도합니다. 또한 각 목장의 엘리사 새벽기도를 통해 한 주 동안 중보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후에는 목장 봉사자들의 손길로 정성스레 준비된 식사가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세대를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예배의 그림입니다.

저는 매번 오이코스 예배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봅니다. 새벽 어둠 속, 어린 학생들이 먼저 나와 밝은 얼굴로 성도들을 맞이하며 안내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보고 덩달아 웃으시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는 부모 세대의 모습에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감동적인 순간은 예배 후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였습니다. 안내팀으로 처음 섬겼던 한 어린 학생의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계속 오이코스 예배 안내로 섬기고 싶어한다."고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심겨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감동과 함께, 더 큰 책임감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 26일(금) 오이코스 1000 예배와 8월의 짧은 섬 이후 9월 개학과 함께 다시 시작되는 오이코스 예배를 위해 많은 기도와 따뜻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대를 넘어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 그 특별한 예배의 순간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천승현 집사

훈련
BAM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베델교회의 BAM(Business As Mission) 훈련팀은 '하나님 앞에서(코람데오)'라는 깊은 신앙의 자각 아래, 비즈니스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도구임을 믿고 실천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 학교 등 삶의 모든 자리가 곧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보내 심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BAM 훈련의 핵심입니다.

첨단 디지털 환경과 소셜 미디어, 인터넷, 화상회의 등으로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는 주님의 대위임령은 이제 더욱 창의적이고 전

략적인 방식으로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베델 BAM 훈련은 인도 콜카타의 성매매 여성들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FREESET', 캄보디아 두 지역(프랑저우와 KAEP)에서 교육 사역(New Hope School)을 펼치는 황선교사님 부부, 두 분의 김선교사님들이 섬기는 Lialoha Pathway International School 등 실제 BAM 사례들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지를 함께 깊이 고민합니다.

훈련은 총 13주간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소그룹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제 비즈니스 사례 연구, 프로젝트, 모의 창업 등을 통해 신앙을 삶과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베델 BAM 훈련팀은 멘토링, 네트워킹, 팀 프로

젝트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고, 모든 직업과 선택, 관계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기준과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직장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베델 BAM 훈련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베델교회 선교 홈페이지(mission.bkc.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준호 집사

교회학교

K-1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교회학교 K-1팀을 소개합니다. 아직 K-1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K-1은 Kindergarten의 K와 1학년의 1을 합쳐서 K-1이 되었습니다. 이를 그대로 저희 예배는 Kindergarten 아이들과 1학년 아이들이 함께 임마누엘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1에는 20여명의 선생님들과 10여명의 중고등학생 TA들이 온 마음과 넘치는 사랑으

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생활에 있어서 Kindergarten과 1학년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Kindergarten 전에는 교회 말씀을 그냥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노는 시간으로 알다가 유치원과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받아드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전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큐티를 하며 나누고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지지 않도록 동역자로 함께 합니다.

팀장 자리를 맡게 되면서 부담도 많이 되고 처음

부터 너무 큰 일을 맡게 되어 걱정이 많았지만 너무나 좋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매주매주 너무 즐겁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K-1부서를 섬기며 팀장이라는 자리가 감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것 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교육부라서 그런지 행사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지만 지치기 보다는 즐기면서 하길 원하고 숫자보다는 더 퀄리티 있는 K-1이 되어 성도님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교회학교가 계속 부흥하면서 새로운 아이들은 매주 오는데 함께하는 선생님은 항상 부족합니다.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저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니 와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앙의 바탕을 이뤄갈 우리 K-1 부서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호성 집사

성례
유아 세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저희 부부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오래 알고 지냈지만 부모님의 큰 반대 속에 교제를 시작했고, 많

은 기도와 상담을 거쳐 12년의 긴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유산이라는 아픔을 겪은 후, 저희는 은우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는 부모님과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채 지내야 했지만, 은우가 태어나고 장인어른께서 손자를 처음 만나신 후 장모님도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인어른께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오랜 시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

니다. 모두가 회복이 어렵다고 했지만, 저희는 끝까지 기도했고, 셀복자부부 가정이 덴버까지 와서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해주셨습니다. 그때 6개월도 안 된 은우는 말도 못 하는 아기였지만 중환자실 병상 곁에서 소리를 내며 함께했고,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노래 부르는 아이'로 불렸습니다. 그 순간들을 통해 많은 교인들과 셀원들이 함께 기도해주셨고, 결국 장인어른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우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아이로 자라길 소망하며, 저희 부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늘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강명성/임지현 집사

예준이의 탄생을 전후로 저희 가정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출산 하루 전, 저는 직

장에서 해고되어 급히 한국으로 돌아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의 성도님들과 셀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주셨습니다. 베델교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동체의 사랑과 중보로 깊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오가며 저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믿을 위에 가정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당시에는 막막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주님과 깊이 교제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준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과 의를 따르는 충성된 제자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양정규 집사/용수연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상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상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상채플: 이형석 전도사
- 예상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상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천

사역광고

전도폭발 훈련 모집

2025년 가을학기 전도폭발 훈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도폭발 훈련은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담대하고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로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복음 제시는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가장 귀한 일이자, 우리 믿음을 더욱 살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단순한 기술을 배우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의 실천입니다. 훈련자, 준훈련자, 그리고 훈련생이 한 팀이 되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직접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는 기쁨의 춤과 노래가 울려 퍼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기쁨의 역사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기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 ▶ 접수기간: 7월 20일(주일)~8월 26일(화)
- ▶ 훈련 기간: 8월 26일(화)부터 15주간
- ▶ 시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 장소: 유년부실
- ▶ 문의: 최동주 집사 (602)466-4477

예배 봉사자

| | | | | | |
|-----------------|-------|--------|--------|--------|--------|
| 주일예배 대표기도(7,8월) | 7/27: | ①부-이창열 | ②부-이여송 | ③부-최병웅 | ④부-이해원 |
| | 8/3: | ①부-정우영 | ②부-임낙현 | ③부-최재호 | ④부-김태원 |
| | 8/10: | ①부-이선갑 | ②부-정현근 | ③부-최호경 | ④부-김승진 |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7,8월) | 7/26: 황정환 8/2: 고스티브 8/9: 박성규 8/16: 기상원

강단꽃(7,8월) | 7/20: 이유경, Sarah Bae 7/27: 정윤아, 한보영 8/3: 김학남 8/10: 오경희, 조나원, 현승원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정치일(신경정신과), 간호사-김현욱 다음주 | 의사-마 준(한외과), 간호사-홍정이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 | 이도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 | 나동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리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18일(금)-19일(토)까지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섬겨주셨던 목사님들께서 1-4부까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1부-이강택 목사(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 담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겸임교수)
- 2부-주은재 목사(필라델피아 목양교회 담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겸임교수)
- 3부-송영재 목사(Basileia Theological Seminary 학장)
- 4부(예살)-홍승민 목사(브니엘 한인장로교회 담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겸임교수)

◆ **오이코스 1000** 여름방학인 7월에 하나님을 향해 더욱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오이코스 1000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이코스 1000 예배는 일천 명이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드리는 간절한 예배입니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온 세대가 함께 모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의 뜨거운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일시/장소: 7월 26일(토) 오전 6시, 본당
강사: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 담임)
예배 특송: Joy & 화평 목장(담당 박성권 목사)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말씀: 7월 23일 저녁 7시 30분, 황성철 목사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베델기도사역 연합기도회** 골방기도, 레위기기도, 목저기, 온라인 두드림으로 동역하시는 모든 분,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오셔서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7월 26일(토) OICOS 예배 후 오전 7시 30분, 비전채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 **교회학교 큐티인 섬머 챌린지**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여 교회학교 아이들의 큐티인 섬머 챌린지가 진행 중입니다. 7월 14일(월)부터 8월 9일(토)까지 매일 큐티를 하고 주일에 책을 제출하는 아이들은 8월 10일(주일) 시상이 있습니다. 여름의 햇살처럼 주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타오르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간/대상: 7월 14일(월)-8월 9일(토), 교회학교 (영아부-초등부, 소망부)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제6기 베델기도학교 등록 안내** 체계적인 기도 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여전히 예수 한분께만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육 기간: 8월 14일-11월 13일(총 14주)
접수 마감/문의: 8월 10일(주일), 양승화 집사 (714)512-1236, prayer@bkc.org



◆ **CIM 한어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런닝클럽'** 많은 청소년이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서 예수만 향해 달려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8월 6일(수) - 8월 9일(토), 갈릴리 수영장
등록: 큐알코드 및 CIM 단체 카톡방 구글 폼 링크
회비: \$150(다자녀 회비: 첫째-\$150, 둘째-\$125, 셋째-\$100), 베델 교인이 아닌 친구 회비: 친구와 초청한 CIM 학생 모두 \$125
문의: 진정훈 집사 (714)318-2183, 이성우 목사 (818)294-8535



◆ **초등부 여름수련회 'We Are'** 많은 학생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등록: 큐알코드 및 초등부 단체 카톡방 구글 폼 링크
기간/장소: 8월 10일(주일)-8월 12일(화), Irvine Outdoor Education Center
회비: \$200(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
문의: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 기도해 주세요

- 2026년 준비를 위한 목회자 정책 수양회가 7월 21일(월)-24일(목)에 있습니다.
- 예살 브라질 단기선교가 7월 22일(화)-29일(화)에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박홍균 집사/박윤영 권사의 아들 박석민(David)군과 Kaitlin Lee양의 결혼식이 7월 26일(토)에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이성도 장로님(이영희 권사의 남편)께서 7월 11일(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이승구 집사님(이기수 집사의 부친, 안미양 집사의 시부)께서 7월 13일(주일)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이맹금 권사님(최미정 집사의 모친)께서 7월 17일(목)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 베델뉴스 편집위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가학교: 수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 1st: **A Change of Thinking** (John 9:1-7) Rev. Kangtaek Lee
- 2nd: **The Test to Offer up the Promised Son** (Gen. 22:1-19)..... Rev. Eun Jae Joo
- 3rd: **Jesus Suffered Outside the Camp** (Heb. 13:11-16)..... Rev. Young Jae Song
- 4th: **Footfall** (1 Pet. 2:18-25) Rev. Sung Min Hong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of Response:** **1st Worship**/In the Presence of the Lord **2nd Worship**/Gaze on Jesus
3rd Worship/Thou, My Everlasting Portion(Hymn 492)